

“제자훈련 하나밖에 한 것이 없습니다”

제자훈련의 목표가 작은 예수로 사는 것에 있다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제대로 훈련할 필요가 있다.



홍동필 목사

한 교회에 담임 목사로 부임해서 10년이란 시간을 제자훈련 하나에만 목숨 걸고 사역해온 목회자가 있다. 전주 새중앙교회 홍동필 목사가 바로 그 소문의 주인공. 지인들은 그를 '곰'이라 부른다. 곰의 독심에 비견될 만한 홍 목사만의 독특한 목회 스타일 때문이다. 작년 가을 새로 입당할 예배당에서 홍 목사를 만났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기 시작한 전주의 새 도심 한가운데 위치한 새 예배당은 너무도 훌륭했다. 오래전 붙여진 이름이지만 '새중앙'이란 이름이 그저 붙여진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곰 같은 홍 목사와 세련된 예배당이 절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일사각오

홍 목사가 새중앙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기까지는 슬한 우여곡절이 있었다. 부산 호산나교회(당시 부산 새중앙교회) 수석 부목사로 있었던 홍 목사에게는 여러 교회로부터 청빙이 들어왔다. 그때마다 홍 목사는 '원로 부목사' (?)로 남겠다는 생각으로 거절하곤 했다. 그동안 한국 교회에 좋은 담임 목사의 모델은 있었지만, 좋은 부목사의 모델은 없어 안타까워하던 홍 목사는 자신이 한번 그런 모델이 돼보고 싶었던 것이다. 그런데 몇 차례 거절을 해도 끈질기게 연락을 해오는 교회가 하나 있었다. 바로 지금의 전주 새중앙교회였다. 홍 목사는 결국 담임 목사와 상의 끝에 전주행을 결정했다.

그런데, 부임 첫날 홍 목사의 눈에 들어온 교회의 모습은 실로 가관이었다. 지붕에 달린 십자가는 떨어지기 직전 상태로 덜렁거리고 있었고, 천장에서는 비가 새고 있었다. 사실 건물은 그런대로 어떻게 버텨본다고 하지만 물질적, 정신적 가난에 찌들려 탈진 상태에 빠져 있는 성도들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목양해야 할지 막막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안 온다고 하는 걸 강청해서 오라고 할 땐 언제고, 막상 부임하고 나니 교인들이 목사의 말은 무시하고 자기들이 해오던 방식대로 교회를 이끌어갔던 것이다. 이런 식으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한 홍 목사는 일사각오의 심정으로 교인들과 담판을 지었다. 자신이 제시하는 조건을 받아들여야만 계속 사역을 하고 아니면 떠나겠다는 카드였다. 물론 그 핵심 조건은 '제자훈련'이었다.

결국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제자훈련이 시작되었다.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무조건 제자훈련을 시작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시작된 제자훈련이었지만 그냥 적당히 진행하지 않았다. 당시 교회의 핵심 구성원이었던 남자 성도들을 중심으로 시작된 제자훈련은 저녁 7시 30분에 시작해 다음날 새벽 1시에 끝나는 일이 잦았다.

제자훈련의 핵심은
변화에 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느냐가
제자훈련을
제대로 받고 있느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새중앙교회의 제자훈련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강한 훈련은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는 요즘의 이야기들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훈련의 수준이나 강도를 낮추어 적당히 하지 않고, 시간이 좀더 걸릴지라도 제대로 훈련하려 했다는 흥 목사의 말에서 알 수 있듯이 훈련은 훈련다워야 하고 반드시 일정한 훈련 수준과 강도가 유지되어야 한다. 제자훈련의 목표가 작은 예수로 사는 것에 있다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제대로 훈련할 필요가 있다. 약화시킨 훈련이 훈련 기간 동안에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훈련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효과가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실제 열매이다.

속 들여다보기

새중앙교회의 제자훈련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5명의 성도들을 만나 솔직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그들 각자가 내리고 있는 제자훈련의 정의에 대해 듣고, 제자훈련을 통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경험했는지에 대해 나누었다.

현재 순장으로 사역하고 있는 경혜숙 집사는 “평범한 생활이 예배가 되는 삶이 바로 제자훈련”이라고 정의한다. “제자훈련을 시작하기 전에는 ‘제자훈련은 성경공부다’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제자훈련을 받으면서 실제 삶 속에서 믿음을 드러내고 작은 예수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또한 10명의 동기생들이 서로에 대해 진지하게 오픈하고 교제한 것은 지금 생각해도 기적처럼 느껴지는 은혜입니다.”

제자훈련을 다시 받는다면, 좀더 충실히 준비하고 특히 삶에 적용하는 과제에 더 집중하겠다는 경 집사의 이야기를 통해 새중앙교회 제자훈련이 삶의 변화에 얼마나 큰 비중을 두고 있는가를 엿볼 수 있었다.

올해 제자훈련을 받고 있는 손은하 집사는 제자훈련의 핵심은 변화에 있다고 강조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것인데 말씀이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제자훈련의 핵심은 변화에 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느냐가 제자훈련을 제대로 받고 있느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제자훈련은 오랜 신앙생활을 통해 표면적으로 알고 있던 것을 성경 안에서 새롭게 발견하는 과정입니다.”

손 집사에게 있어서 새중앙교회는 10년 만에 다시 시작하는 신앙생활의 출발지였다. 1996년 손 집사가 새로운 신앙생활의 터전으로 새중앙교회를 선택했던 이유는 말씀이 살아 있는 교회라는 확신 때문이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도 도전이 됐지만,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에 큰 자극을 받은 것이다.

30대에 신앙생활을 시작한 박용규 안수집사에게 제자훈련은 매우 생소한 단

어였다. 그러나 결국 박 집사는 제자훈련을 통해 자신의 참 모습을 깨닫는 기회를 얻었다. 그리고 그러한 깨달음을 통해 삶 속에서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예수의 제자가 되는 길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됐다고 한다.

“제자훈련을 통해 다소 독선적이던 삶의 태도를 벗고 소외된 계층의 사람들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을 배려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제자훈련은 자칫 지적인 성경공부에 그치기 쉬운데, 새중앙교회의 제자훈련에서는 말씀과 삶이 균형을 이루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양교회 집사라서 술을 먹지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복음의 영향력을 위해 직장에서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종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종이 되는 것이 제자훈련의 목표라고 말하는 박 집사에게서 새중앙교회 제자훈련의 깊이를 엿볼 수 있었다.

제자훈련을 통해 삶 속에서 말씀과 동행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할 수 있었다고 소개하는 임권희 안수집사는 “예를 들면, 거리에서 교통신호를 지키는 일 하나만 해도 제자훈련

“ 제자훈련을 위한 제자훈련’은 받지 말라고 강조합니다. 제자훈련은 십자가의 보혈에 감사해서 예수처럼 살겠다는 각오 때문에 받는 것입니다.”



박시용 안수집사는 제자훈련의 목표는 제대로 된 주님의 종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순원들이나 후배들에게 ‘제자훈련을 위한 제자훈련’은 받지 말라고 강조합니다. 제자훈련은 결코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제자훈련은 십자가의 보혈에 감사해서 예수처럼 살겠다는 각오 때문에 받는 것입니다.”

박 집사는 제자훈련뿐만 아니라 신앙인의 모든 삶과 사역이 그래야 한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 교회 내에서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당을 청소하는 일에 참여한 사람이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 이런저런 비판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저 본인이 그 일에 동참했으면 즐겁게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면 그만인 것입니다. 굳이 그들에 대해 비판하는 것은 자신의 섬김을 어떤 형태로든 내세워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자훈련을 통해 일어난 변화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을 묻자, 박 집사는 “공직에 있기 때문에 솔직히 회식 자리를 피하기가 힘이 듭니다. 제자훈련을 받기 전에는 참 많이 갈등했습니다. 그런데 제자훈련을 받고 나서는 당당하게 ‘저는 새중

이전과 이후가 확연히 다릅니다. 어찌 보면 아주 사소한 일이지만 삶의 작은 부분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제자훈련을 받았던 시기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힘든 때였습니다. 가정이나 직장 모두 IMF 한파로 인해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해주는 훈련 동기들이 없었다면, 그 시기를 무사히 통과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힘든 시기에 제자훈련을 받으면서도 삶의 변화에 대한 도전을 가장 큰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 임 집사의 모습에서 새중앙교회의 제자훈련이 얼마나 철저히 말씀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성장의 이유

이렇게 제자훈련을 통해 든든한 기반을 다져온 새중앙교회는 현재 성장을 위한 도약을 맞고 있다. 현재의 예배당으로 이전한 지난 가을 이후, 출석 인원으로 볼 때 2배 가까운 성장을 했다. 지금도 이러한 성장세는 꺾이지 않고 지속되고 있다. 특히 주일학교의 성장이 두드러진다. 새로운 곳으로 이사하



전주 새중앙교회 흥동필 목사가 부임할 당시 교회건물은 십자가가 떨어지기 직전일 만큼 낙후되어 있었다. (우) 지난 가을 이전하고 성장기를 맞고 있는 전주 새중앙교회 전경. (좌)



결국 핵심은 준비된 사람이다.

각자에게 맡겨진 영역에서뿐 아니라

전체 교회를 위해서도

사람을 세우는 일에 진력해야 한다.



고 교회를 찾던 중에 아이들 손에 이끌려 새중앙교회에 정착한 가정도 이미 여럿이다. 그런데 이런 급격한 성장의 이유에 대해 새중앙교회의 구성원들은 한결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간 새중앙교회는 매스미디어를 통한 홍보를 한번도 해본 적이 없다. 교회에 관한 소문이 입에서 입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그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찾아든 것이다. 제자훈련으로 소문이 나 있는 교회인 것을 알고 자발적으로 찾아오는 이들이 많은 것이다. 지금의 예배당으로 옮기기 전에도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이들이 있었지만 비좁은 예배당을 보고는 정착하지 못했다. 그러다가 현재의 예배당으로 옮겨온 후에는 그때 찾았던 이들뿐 아니라, 이 지역의 아파트에 새롭게 이사 오는 이들과까지 정착하고 있다. 요즘 새중앙교회의 새 가족이 된 이들은 살아 있는 예배와 복음에 대한 강조 때문에 정착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순장으로 섬기고 있는 어느 집사는 성장의 또 다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전주 지역에서 남성 소그룹이 활성화 되어 있는 교회는 새중앙교회가 거의 유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IMF 시절에도 멈추지 않고 남몰래 해온 구제와 선교사업 등이 소문이 났습니다. 학생들이라면 좋은 학교에서 좋은 선생님에게 배우고 싶듯이, 성도들도 제대로 준비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한계 극복과 비전으로의 도약


급격한 성장기를 맞고 있는 새중앙교회가 앞으로 보강해야 할 부분과 품고 나가야 할 비전에 대해서도 성도들은 한마음이었다. 성도들은 지금도 열심히 기도하는 교회이지만 좀더 뜨겁게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시기이며, 특히 기도의 정예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무엇이 더 필요한지 부족한지는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뜨거운 기도입니다.”

또한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기 위해 소외

된 이웃들에게 좀더 깊은 애정을 가지고 다가가야 한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훈련을 통해 성장의 내적 기초를 든든히 다져왔다면, 앞으로는 외적으로 성장하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교회가 세상의 가치관을 주도했지만 지금은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고 있는 현실이며, 이러한 시대적 상황은 교회가 다음 세대를 대상으로 한 사역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준비할 때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새중앙교회 성도들은 인식하고 있다.

성도들의 이런 기대와 비전의 뿌리가 홍 목사에게 있음은 어렵지 않게 유추해낼 수 있다. 현재 새중앙교회는 노인복지와 미혼모복지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여러 일들을 추진하고 있다. 홍 목사는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노인 문제와 미혼모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예상한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두 계층에 대한 사역을 교회가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런데, 홍 목사의 말처럼 현대 교회에는 자기 몸처럼 교회를 책임지고 아끼는 이들이 많지 않다. 교회가 품은 비전의 성취를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훈련된 제자들이 배출되어야 하고 또한 비전이 희석됨 없이 공유되어야 한다. 어느 것 하나 쉬운 일이 아니다.

홍 목사는 성장기를 맞고 있는 새중앙교회의 최대 숙제로 뜻을 같이하는 동역자와 소그룹 리더의 양성을 들었다. 이는 제자훈련에 진력해온 홍 목사다운 진단이었고 또한 컨설팅을 통해 얻은 객관적인 결과와도 일치하는 부분이었다. 죽기 살기로 뛰던 예전처럼 홀로 모든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이제는 불가능한 상태이다. 함께 사역의 짐을 나누어 져야 하는 동역자가 절실히 요구된다.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는 새중앙교회가 안고 있는 숙제는 사실 우리 모두의 숙제이기도 하다. 결국 핵심은 준비된 사람인 것이다. 각자에게 맡겨진 영역에서뿐 아니라 전체 교회를 위해서도 사람을 세우는 일에 진력해야 할 때라 생각한다. 

〈김건주 목사〉